

PetroChina, 정유공장 폭발 사고

Fushun 제2공장 중유축매장치 폭발 ... 가스 누출 추정 6명 사망

PetroChina의 정유공장에서 또 다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기업 PetroChina는 Fushun 소재 제2공장에서 1월19일 오전 9시(현지시간)경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장 폭발로 인근 주택들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민들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은 제2공장 중유축매장치에서 발생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1월16일 저녁부터 자극적인 냄새가 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쳐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PetroChina는 2010년에도 2개월 간격으로 폭발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2011년 들어서도 1월17일에는 계열사의 Jilin 소재 공장에서 천연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했으며, 7일 저녁에는 Lanzhou 지사 제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등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1/19>